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공부는 본 뿌리 법신자리가 한다

법신 ②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남자는 남자 대로 무슨 고민이 있어. 생사문제도 있고 하니가 잘 산다 못 산다는 거. 남자는 남자 몸 대로 고민을 받아야 돼. 여자는 여자 몸 대로 고민을 받아야 돼. 젊으면 젊은 대로 고민을 받아야 돼.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그거 괴롭지 않아요? 사실에 있어서는. 또 늙으면 늙은 대로 고민을 받아야 돼. 전부가 고민이라. 돈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고민이라. 그러나 그 자리를 딱 깨쳐서 안다 하면은 고민이 있을래야 있을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하니 지금까지 말한 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어. 이 도리. 그만 해말썹한 그 슬기의 자리. 이것을 아는 것은 누만점을 통해서 공부할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신입니다. 부처님도 누만점을 공부했어. 석가세존께서. 우리처럼 간단하게 이리 한 것이 아닙니다. 누만점을 공부 했는데, 그렇다면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누만점을 통해서 전생 전생 전생 그 전생에. 공부는 누가 공부를 하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공부는 이 색신, 가족주머니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주머니는 무정물이거든요. 가족주머니를 끌고 다니는 법신자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가슴이 떨릴랑 겁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나는 색신이 공부를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 색신을 끄집고 다니는 법신, 이 자리가 공부를 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금시 내가 말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불께서는 그 석가모니불의 삼십이상 팔십중오가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할라 했자 어떻게 공부를 할 거여. 이거는 자성이 없는 물건인데.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는 건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이 누만점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다 하는 것은 법신자리가 한 거 아닙니까? 법신자리라는 것은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나는 듯해서 색신을 나투었지언정 나중에 인연이 다하면 거두어들이고 또 다른 색신 나투고, 그러니까 본 뿌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은 본 뿌리, 법신자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색신이 공부하는 것이

입니다. 여러분의 색신을 끄집고 다니는 그 법신자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하면 여러분도 누만점을 할 수가 있어요. 몸은 자꾸 바뀌. 나이가 많으면 나중에 또 내버리고 다른 몸 받고, 다른 몸 받을 때 법신이 또 하고 또 이거 쓰다가 내버리고 또 다른 몸 받아. 그러면 법신이 또 공부를 하고, 그리 되는 건데. 여러분도 누만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도 그 말 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누만점을 공부해서 공덕을 이루어. 그래서 가고 오고 앉고 눕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다 아셨는데 우리도 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말마디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테 의미가 심상합니다. 부처님께서서 그리

“

가족주머니는 무정물 색신을 끌고 다니는 법신이 공부를 한다.

법신자리라는 나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 누만점을 할 수 있다.

”

했어. 누만점을 통해서 각고 고행을 했습니다. 괴로움을 새겨. 새길 각자, 고행을 했어. 각고 수행을 했어. 부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로 이 자리에 있어서 부처님의 법신분이나 우리의 법신분이나 사실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데 왜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내면 내다 이렇게 하느냐. 이 높. 가족주머니 이 높. 이 높 때문에 지남철(자세)에 끌리듯이 여기에 쓸려서 딱 여기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내는 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실은 그건 지생각뿐이지, 이 색신에 들어앉은 것을 바탕으로 한 생각뿐이지 사실로 밧줄도 소리도 뉘새도 없는 그 자리는 부처님의 법신과 합합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말을 갖다 여기 써 놓지는 않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몸을 방하좌해 보세요. 이까지 거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데 이까지 거 뭐 생각할 거 없다 말 이야. 그러나 내가 이거 있을 때까지 내 관리물이나 관리하는 하지만 이거 내 아 니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번 얼굴 들어 보세요. 뺨이 있는가. 아무 것도 안 뻐. 백주(백히) 잠재의식이 들어서 여긴 내 가슴이다 여기는 내 팔이다 여기는 내 다리이다 그렇게 할지언정 다리라 해 봤든 그거 실다운 거 아니고 팔이라 해 봤든 그 실다운 거 아니고 가슴이라 해 봤든 이거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건데 뭐 그까짓 거, 그거 할 거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방하좌를 해. 방하좌 딱 하고 허공을 딱 한 번 쳐다봐. 나중에 허공 문제 나오니다. 아무 것도 없네. 사실로 이거 거짓말 아니여.

지금 나의 분수로 봐서는 나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 말하고 있거든. 아무 것도 없어. 이래 보니 내가 있긴 있어요. 이래 보니. 하하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내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너무나 여기에 젖어가 있어. 너무나 여기에 젖어가 있어. 또 이것이 없으면 공부도 못합니다.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둘로 보는 거라 말이죠. 둘로 보는 건데, 그걸로 보더라도 우리가 요 도리만 딱 깨치면 바로 성불하는 겁니다. 부처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그러하니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은 부처님하고 우리를 둘로 보자 말아야. 실은 하나네. 둘로 볼 수가 없는데. 실은 하나거든요. 하나지만은 둘로 보자 말아야. 둘로 봐서 부처님께서 누만점을 공덕을 이루었어. 우리는 못 이루었어. 이렇게 보자 말아야. 보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부처님께서 공덕을 이룬 그걸 갖다가 전부 햇바닥을 굴러서 가짜 햇바닥을 빌어서 말씀을 하셨거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귀를 통해서 이 법신이 듣는다 말이지. 들어 놓으면은 부처님은 고행을 해서 알았지만 우리는 하나도 고행 안 하고 아는 거나 한 가지라 말이여.

진신행 보살, 알아듣소?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고행을 해서 알았다 말이죠.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부처님은 최초의 등불이었다

⑥ 청전법륜(請轉法輪)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一拜) 十方所有世間燈 最初成就菩提者 我今一切皆勸請 轉於無上妙法輪 親觀如來無量光 現前授我菩提記 蒙彼如來授記已 化身無數百俱胝 願共諸衆生 往生安樂國

전법륜(轉法輪)을 청한다.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러 주십시오 하고 우리들이 여래께 청을 드린다는 뜻 이럴테면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일러 주십시오, 하는 뜻이다. 권해서 청한다는 권청(勸請)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일러 주십시오 하고 청한다는 것이다. 이 권청은 방법장(法障)을 제거한다. 방법장은 법(法), 진리를 비방하는 장애다. 이 장애를 제거해야 된다. 진리를 비방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듣지 않는다는 말과 통한다. 이럴테면 소승(小乘)이나 소인(小人)이니 하는 것과 같다. 소인이라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고, 소승은 활발한 대승(大乘)의 말을 듣지 않고 조그만 자기라고 하는 그것만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것이라고 믿는 태도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며 더 짙어 악성이다.

부처님의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서라도 널리 진리를 구하고, 얻어 듣고, 지식을 자꾸 넓혀 나간다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진리는 유독 자기 혼자서만 알아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없으며, 또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터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혼자만의 점유물일 수는 없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가운데 들을만한 말이 있을 것이며, 또 대 사회의 생명, 대 사회성의 자각에 입각한 생활을 영위할지언정 많은 사람을 대하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권청을 한다. 좋은 의견을 일러 주십시오, 좋은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사회와 국가, 전 인류에게 행복과 복지를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므로서 우리는 누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혹은 누가 사회를 구제할 정론과 포부를 갖고 있느냐?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 진리와 정론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고, 성의를 다하여 간청해야 한다. 그러면 그 기회는 성대한 형식을 띤 시민회관 같은 공식상일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단 둘이서만 마주 앉았을 경우에도 천지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베푼다는 것은 진리의 비, 법우(法雨)가 세상에 흔건히 내려 만물을 운택하게 하고 생기를 돌구어 준다 뜻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법륜(轉法輪)을,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성심껏 권청(勸請)한다. “부처님은 최초의 등불이었다. 우리는 이분께 청한다. 진리의 아름다운 수레바퀴를 굴러 말씀을 들려 주시기를, 부처님의 한량없는 광명, 예 있으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환한 세계. 아, 온갖 것이 오늘 제 자리에

“

진리의 아름다운 수레바퀴를 굴러 말씀을 들려주시고 한량없는 광명 베풀어 주시니 삼라만상이 오늘 제 자리에서 뚜렷이 미묘한 모습으로 보인다

”

뚜렷이, 미묘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듯 우리는 신·구·의 삼업(三業)으로 묘법륜(妙法輪)을 굴리시라고 은근히 청한다.

⑦ 청불주세(請佛住世)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 十方所有諸衆生 願離憂患常安樂 獲得甚深正法利 滅除煩惱盡無餘 諸佛若欲示涅槃 我悉至誠而勸請 唯願久住剎塵劫 請佛住世轉法輪 願共諸衆生 往生安樂國

청불주세(請佛住世)는 부처님을 청하여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계신사 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오래 계셔 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지식이 있고 덕 있는 사람더러 우리의 더불어 여기 계셔 주시

오 하는 말이다. 그러면 이런 어린 이들을 머물러 계신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사신는데 여러 가지 구어되는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편리를 돌봐드리고 지공(지성으로 공양)하고 봉사해야 한다. 모든 중생은 오늘 슬한 걱정과 혼란과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지만 이런 불행을 없애려면 스스로 마음을 안태하게 가라앉히고 번뇌와 망상을 끊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린 이들의 밝은 말씀에 귀 기울여 주고, 어린이들은 이런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하여 이런 상호 유대(相互紐帶) 속에서 사회는 차츰 밝아진다.

덕 있는 이들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계시어서,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法輪), 덕륜(德輪)이 항상 굴러 우리에게 빛을 비취주고, 길을 밝히고, 광명(光明)스러운 천지에 우리가 있게 해 주는 일이다. “중생들은 모두 다 걱정들과 혼란 속에 있다. 이 괴로움을 풀 길은 없을까?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리. 번뇌를 죄다 끊어야 하리. 그러나, 혼자 스스로 진리는 알기 어렵다. 우리들 중생에게 누가 와서 열반(涅槃)을 가르쳐 주더면 그를 받들어 귀 기울인다. 아, 덕있는 이여, 가지 말고, 우리와 더불어 여기 천년이고 만년이고 머물러 주소서 진리의 수레바퀴가 구울러 가고 덕있는 말씀이 들리는 동안 우리들 중생은 기어코 살 길을 찾을 것 입니다.”

바라건데 모든 인류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한결같이 청불주세의 생각을 하고, 성의를 다하여 덕 있는 이들을 받든다면 우리는 이 지구 상에서 고뇌를 물리쳐 우리가 염원하는 안락국(安樂國)을 이룩하여 지혜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국운융창 국태민안기원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창종 14주년법회 제5대 종정추대 및 총무원장취임식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선사로 이어온 선맥을 전수받은 만공선사, 해천선사, 도일선사의 법을 이은 고봉당 지산대종사께서 본 종 제 5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취임식을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宗旨로 하고 있습니다.

종 정 예 하 : 고봉당 지산 대종사
전 계 대 화 상 : 석능인 대종사
원 로 의 장 : 범아 대종사

총무원장 : 혜송
교육원장 : 무변
문화원장 : 영봉

총회의장 : 법장
포교원장 : 효천
무술연수원장 : 도천

사정원장 : 법화
호계원장 : 인묵

중앙선원장 : 덕암
염불원장 : 상호

사서실장 : 원담
교육부장 : 해광
교학부장 : 혜성

총무부장 : 해천
호법부장 : 광명
포교부장 : 해광

비구니부장 : 흥신
사회부장 : 인연

재무부장 : 수연
규정부장 : 도신

경기교구총무원장 : 인덕

경남교구총무원장 : 금조

충북교구총무원장 : 정진

대구교구총무원장 : 법천

종도모집중

현 종도 422명, 등록사찰수 382개 사찰

불기 2558년 6월 7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창종 14주년 법회, 제5대 종정추대 및 총무원장 취임식을 여법하게 봉행 하였습니다. 대법회에 참석해주신 대덕 큰스님, 사부대중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원장 혜송 합장